

노시로 칠석

‘칠석’은 중국에서 유래된 축제로 일본에서는 8 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궁중 행사로 기념되었습니다. 에도시대 초기(1603~1867 년)에는 전국적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. 칠석(‘7 번째 저녁’을 의미함)은 ‘별 축제’라고도 불립니다. 이는 별 베가(Vega)와 알타이르(Altair)를 나타내는 어느 두 신, 베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잘 치는 목동 견우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.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기뻐 매일 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지게 되었고 1년에 한 번, 7 월 7 일에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베가와 알타이르는 음력 7 월 7 일경, 양력 8 월 초에 두 별이 함께 하늘에 나타납니다. 현재 ‘칠석’은 전국적으로 7 월 7 일에 기념되고 있으나 지금도 8 월에 기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.

칠석 행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식을 한 조릿대의 가지에 ‘단자쿠(短冊)’라고 불리는 형형색색의 종이 조각을 매달아줍니다.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단자쿠에 소원을 적습니다.

노시로시에서도 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가 열립니다. 하이라이트는 8 월 3 일과 4 일에 진행되는 ‘천공의 불야성’(“Lantern Castles in the Sky” 하늘에 떠있는 성곽형 등롱)과 8 월 6 일과 7 일에 진행되는 ‘노시로 네부나가시’ (졸음과 함께 재난을 몰아냄) 두 개의 퍼레이드입니다. 노시로 네부나가시는 ‘야쿠타나바타(役七夕)’라고도 불리며, 여름에 잠을 방해하는 더위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. 또한, 질병 퇴치와 가을 풍년에 대한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.

두 행사 모두 거대한 일루미네이션 성곽형 등롱이 등장합니다. 윗부분에 샤치(몸은 잉어이고 머리는 호랑이인 상상 속의 동물)를 태운 성곽형 등롱이 악기 연주자와 소리꾼과 함께 거리를 행진합니다. ‘천공의 불야성’에는 17.6m 의 ‘가로쿠(嘉六)’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성곽형 등롱으로 알려진 24.1m 의 ‘지카스에(愛季)’ 등 2 개의 등롱이 등장합니다. 한편 ‘야쿠타나바타’ 기간 중 지역별 그룹은 독자적으로 정교한 디자인의 등롱을 만듭니다. 8 월 7 일에는 샤치를 요네시로강에서 태워 흘려보내며 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.